

젊은 귀농귀촌인 유입 청신호

임실군,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5억원 확보

임실군이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군은 전북도가 주최한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에 선정,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삼락농정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임실군은 세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도정의 핵심인 삼락농정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임실군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삼락농정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 따른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중심에는 임실군 희망농업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지난 2015년부터 행정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발족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농정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 사업계획 단계부터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창업학교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설계 과정까지 마치면, 그 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계획을 선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핵심인 우수 인재와 우수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지역 내 젊은 귀농·귀촌인력의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조직인 영농조

합법인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농정거버넌스 협의체인 임실군 희망농업연구회를 올해 새롭게 재편, 임실군 삼락농정 발전 협의회로 발전시키으로써, 이번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일대일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전북도의 핵심도정인 삼락농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활력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를 많이 유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는 지난 6일, 관내 AI 방역초소를 방문해 시유입처단에 애쓰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AI 방역초소 방문 근무자 위로·격려

임실군의회 격려품 전달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지난 6일, 관내 AI 방역초소를 방문해 AI유입처단에 애쓰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면과 강진면 2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일 28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문영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대 한파속에 교대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AI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정이 협력하여 축산농가와 더불어 모든 군민이 안락한 지역사회가 될 때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방역초소 근무자들이 조금이나마 추위와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빵과 과일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 초소 관계자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언제보다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군의회의장 및 의원들께서 직접 방문해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최선을 다해 AI방역 활동을 펼쳐 청정임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로 안전사각계층 해소

남원소방서 이용 독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의존하는 매체는 스마트폰(57.1%)이 가장 많았고, TV(38.5%), 라디오(2.3%), PC(1%) 등이 뒤를 이었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제공되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전화를 통한 음성신고뿐만 아니라,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119 신고 서비스를 말한다.

신고자는 영상 통화는 물론, 문자

(SMS, MMS) 나 스마트폰 앱(APP), 웹(Web)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으며,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보다 정확히 사고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앱을 활용하여 신고했을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이나 해상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조용주 소방서장은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많은 학생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며,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한 안전사각계층 해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모바일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신고앱'이라 검색한 후 설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서울시 직거래장터 열려

"설 명절 선물은 청정임실표 농특산물과 함께 하세요".

7일 서울시 강서구청 앞에서는 '맑고 푸른 청정지역 임실'을 앞세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마련,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앞선 6일부터 열린 직거래 장터에는 임실치즈농협 등 14개 업체가 참여해 치즈 및 유제품류, 육류, 배, 한과, 장류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심 민 군수도 이날 강서구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찾아 행사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및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심 군수는 또한 참여업체들과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임실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들 이 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측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군은 강서구를 비롯해 12일부터 13일까지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을 맺은 자치단체인 마포구, 양천구에서도 우수농·특산물을 엄선,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재경 임실군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고향의 훈훈한 정과 소식을 전하는 행사 안내장 1,400여장을 사전 발송, 보다 많은 재경 임실군민회 회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고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고향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쌀 변동직불금 지급 개시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2017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7년산 쌀변동직접직불금으로 74억1200만원을 살명절 이전인 2월 초순부터 지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7,576호로 농가당 평균 9십7만18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며, 남원 전체 농가수 8,393호의 약 90.3%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원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9,402ha로 ha당 지원 기준은 78만18000원이며, 이는 목표가격 18만8000원/80kg 대비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전국 산지 평균쌀값 15만4603원/80kg 제외한 차액의 85%인 2만18387원에서 고정직불금 1만5873원/80kg을 제외한 가마당(80kg) 지원액은 1만2514원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이 식량안보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 명절 이전까지 모두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젊은 층 관광객 유치 기대 시민 일상환경 즐거움 제공

남원시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트릭아트(trick art) 기법을 도입한 포토존을 조성해 젊은 층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남원시는 먼저, 주요관광지 및 시내버스 정류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트릭아트 공간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는 젊은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일상 환경에도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복안이다.

남원시는 관내 560개의 시내버스 정류장 중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50여 곳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우선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이러한 평면적 포토존이 전통식 건축물과 구조물로 이루어진 남원의 관광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일상과 젊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선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광주방

면) 관광투어와 폭포, 호수를 묘사한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오가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남원예촌,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 등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관광객 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남원의 아름다운 봄을 알리는 '남원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하루 이틀쯤 잠을 자면서 여행하는 '딱한 1박2일 관광인프라 구축', 영남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남대문을 열자'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